전주 시네마 프로젝트 특별한 영화 3편 감상하세요

전주프로젝트:삼인삼색은 올해 '전주시네마프로젝트'로 이름을 바꿔 독자적인 브랜드를 강화한다. 이와 관련한 작품들은 전주국제영화제의 제작지원 뿐만 아니라 제작, 배급 등을 통한 거시적 안목의 투자가 이뤄진다. 이 같은 투자는 해외영화제에서의 성과는 물론 국내 극장 개봉에서도 보다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전주시네마프로젝트는 전주국제영화제 성장의 주축을 이룬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내포돼 있다.

▲우리 손자 베스트-김수현, 2016,

짐을 나와 고시촌을 전전하고 있는 고환은 키보드 워리어다. 광화문 촛불시위 장면에 인기 게임인 LOL의 내레이션을 덧씌워 효과를 받지만 목소리의 주인인 성우에게 고발을 당해 경찰서를 가게 된다. 한편 낡은 목욕탕을 운영하다 접고 좌익 척결을 위해 매일 탑골공원에 나가는 정수는 조직을 위해 봉사하다가 국립묘지에 묻히길 소망하는 노인이다. 어느날 우연한 일로 엮인 두 사람은 할아버지와 손자처럼 막역한 사이가 되고 그들이 내세우는 명분을 충족시키는 거사를 도모하게 된다.

우리 손자 베스트

〈우리 손자 베스트〉는 〈귀여워〉, 〈창피해〉로 고유의 세계관과 스타일을 증명했던 김수현 감독의 네 번째 장편영화이다.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나와 방사형으로 뻗어가는 방사향으로 내러티브를 결합한 전작들과 달리 이 영화에선 등장인물들의 관계가 훨씬 단순하게 응축됐지만 두 주인공을 축으로 그들이 관계 맺는 인물들과 세상의 복잡한 요지경을 응시하는 김수현의 시각스타일을 여전히 넘다. 이념대립으로 병들어 가는 한국사회의 속내를 궁극의 인간애로 감싸안는 이 영화는 기묘한 유머감각이 돋보인다. -김영진 전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눈발-조재민, 2016

어느 겨울날 고등학생 민식은 부모님을 따라 아버지의 고향인 고성으로 내려온다. '눈이 내리지 않는' 고장인 낯선 곳. 고성에서 민식은 무례한 동급생들의 폭력에 시달리며 마음이 얼어붙은 소녀 예주를 만나게 된다.

민식은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하지 않기 위해 그들과 함께 예주를 괴롭히는데 가담하지만 큰 죄책감을 느낀다. 고성에서 교회를 열려는 부모가 민식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는 사이 그는 어른들의 세계 못지않게 타락한 아이들의 세계를 불편하게 견디며 예주의 불안한 눈빛에 자꾸 마음이 간다.

〈눈발〉은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 여리고 소외된 청소년들의 부서지기 쉬운 우정과 연대를 그리는 작품이다.

감독은 사악한 세상과 그런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면서도 아무런 자각을 갖지 못하는 어른들과 아이들의 잔인한 공모를 다룬다. 나아가 그 좁은 공간에서 다친 짐승처럼 부들부들 떨고 있는 순수한 아이들의 자그마한 망명기를 다룬다. -김영진 전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눈발

▲우아한 나체들-루카스 발렌타 리너, 2016

아르헨티나의 페페적 무촌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여주는 이 작품은 가정부로 일하는 벨렌의 시선을 통해 다가간다.

벨렌은 나체 클럽을 발견하게 되고 그 모습을 통해 중산층 가족의 위기와 부조리한 현대인의 삶의 조건을 담대하게 묘사한다. -이상용 전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정해은 기자

전주프로젝트마켓 극영화 · 다큐멘터리 행사

내일까지 10편 소개

제8회 전주프로젝트마켓이 지난 1일부터 본격적인 행사에 돌입했다.

오는 4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주프로젝트마켓은 160여개 투자·제작·배급사에서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주프로젝트 프로모션, 라이징 시네마 쇼케이스, 오픈 포럼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

참신한 극영화와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전주프로젝트 프로모션에는 '극영화 피칭'과 '다큐멘터리 피칭'을 통해 총 10편의 프로젝트가 소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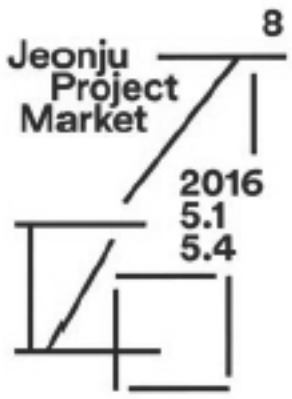
다양한 장르와 완성도 높은 시나리오를 갖추고 있는 극영화 피칭에는 '지인의 사람'(김양희), '오리의 웃음'(김영남), '무정이 불타고 있다'(신이가, 이상철), '잉걸, 불타는 도시'(이정국), '철혈남아'(고은기) 등 5편으로 구성됐다.

극영화 피칭은 프로젝트마켓이 시작되기 전부터 다수의 투자, 제작사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투자를 타진하는 등 영화 산업관계자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큐멘터리 피칭은 제작 가능성과 대중성, 다양성을 중심으로 선정된 프로젝트가 영화산업 관계자와의 만남을 기다린다.

'간첩의 탄생'(조은성), '까치날'(권우정), '더 디스코 스타'(이주호), '무스탕 가는 길'(정혜민), '이중섭의 눈'(김희철) 등 5편이 준비됐다.

다큐멘터리 피칭은 비즈니스 미팅 사전 접수 때부터 투자, 배급사의 신청이 몰리는 등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전주프로젝트마켓 포스터

여기에 배급사가 없는 한국영화를 대상으로 하는 라이징 시네마 쇼케이스에는 '그저 그런 여배우와 단신 대머리남의 연애'(박영일, 김정민우), '다방의 푸른 꿈'(김대현), '푸르, 잊혀진 꿈의 기억'(임정하), '파란 안이 달린 얼굴'(김수정), '할머니의 먼 집'(안보영) 등 5편이 배급사를 대상으로 작품을 홍보한다.

지난해 이 프로그램을 통해 2편의 참가작이 배급계약을 맺은 바 있어 올해도 큰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영화 산업과 관련된 이슈를 주제로 일반관객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오픈 포럼'은 2일과 3일에 열린다.

/김민근 기자

전주 한지패션대전 이달 5~6일 열려

50작품 패션 쇼… 6개 부문 입상자에 각각 1450만원 지급

'2016 전주한지패션대전'이 오는 5일과 6일 양일간 오후 7시 한국전통문화전당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전주 한지의 독창성 및 우수성, 현대적 가치를 담은 한지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해 전주한지패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함 것으로 전주시와 전주한지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전주패션협회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전주시, 한국전통문화전당, 한국패션협회가 후원한다.

패션대전은 5일 1부 한지패션디자인경진대회와 2부 전주한지국제패션쇼를 시작으로 6일에는 코스튬플레이패션쇼가 각각 펼쳐진다.

첫 일정인 한지패션디자인경진대회는 지난 2월 참가자를 모집하여 심사를 통해 선정된 50작품을 패션쇼에 올리고 수상식을 갖는다. 시상은 6개 부문에 걸쳐 50명의 입상자에게 총상금 1,45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전주한지국제패션쇼에는 국내 디자이너 14명과 해외 디자이너 8명이 참여해 국제행사로서의 위상을 높인다. 이 패션쇼에는 전주시장과 시의장, 한지축제조직위원장 등이 한지로 만든 한복 및 실용 의상을 입고 모델로 출연해 전주한지를 홍보한다.

6일 코스튬플레이패션쇼는 만화, 영화,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상을 직접 만들어 입고 연출하여 시민과 어린이들이 함께 즐기는 행사로 전국 9개팀 80여 명이 참여한다.

전주한지패션대전 행사모습

이번 행사와 관련해 전주패션협회 관계자는 "2016 전주한지패션대전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에게 전주의 멋과 한지의 아름다움, 한지산업의 미래를 볼 수 있는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해은 기자

띠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소장 H.P: 010-6890-1488, 홈페이지: http://www.philiab.com/

〈2016년 5월 3일〉

▷쥐띠
48년생: 외부적인 활동을 할 때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운이다.
60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는 않으나 결과는 좋으니 긍정적으로 진행.
72년생: 어려움이 있어도 인덕이 따르는 운이니 잘 해결 될 것이다.
84년생: 동기간과의 화합에도 좋은 운이다.

▷소띠
49년생: 판단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운이다. 일시적인 감정으로 진행하면 실패수가 따르니 주의하라.
61년생: 분수 밖의 일에 욕심을 부리면 반드시 화가 발생하니 주의가 필요.
73년생: 구설수가 따르니 말과 행동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
85년생: 금전적으로 손해가 따르는 운이다. 투자는 금물

▷호랑이띠
50년생: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 한다면도 좋지 못하니 매사 주의가 필요하다.
62년생: 동행을 하게 되면 손해가 발생하니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
74년생: 혼자서는 어려움이 따르니 함께 행동하는 것이 좋겠다.
86년생: 타인과의 관계에 좋지 못하니 일을 줄여라.

▷토끼띠
51년생: 재물과 관련된 일로 신경을 일이 발생한다.
63년생: 구설수가 따르는 운이니 매사에 주의가 필요.
75년생: 일시적인 감정으로 진행하면 손해가 따르니 다시금 되는한 후 결정하라.
87년생: 윗사람의 도움으로 인해 해결된다.

▷용띠
52년생: 손 아래 사람으로 인해 좋은 일이 생기는 운.
64년생: 너무 강하면 부러지는 법이다. 때로는 자존심을 굽혀야 일을 수 있는 법이다.
76년생: 좋은 일하고 원망을 들으니 다른 사람의 일에 나서지 마라.
88년생: 상황의 기류가 좋지 못하다.

▷뱀띠
53년생: 타인과의 화합에 좋은 운이다.
65년생: 금전에 치우치면 일을 그르치게 된다.
77년생: 다른사람의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공연한 상황이 처하게 되니 조심하라.
89년생: 겉으로는 서로 웃고있으나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

▷말띠
54년생: 손재수가 따르는 운이니 투자나 투기는 삼가는것이 좋다.
66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운.
78년생: 어려운 일이 있다면 자존심을 버리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라.
90년생: 마무리단 종무를 시작하기에 아주 좋은 운.

▷양띠
55년생: 분수에 맞지 않는 욕심은 화를 부르니 주의하라.
67년생: 사소한 일로 사비를 가는 사람이 생기니 마음을 다스리고 솔직하지 않아야 하겠다.
79년생: 금전적으로 손재수가 따르니 무리한 투자는 금하라.
91년생: 어려움이 있을때에는 손윗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원숭이띠
56년생: 손아래 사람에게 도움 받을 일이 생기니 경우적인 인정은 오히려 부정적인 상황을 만든다.
68년생: 하고자 하는일이 중간중간 막히는 일이 발생하니 망심은 금물.
80년생: 좋은 일하고 뺨 맞는격. 나서지 않는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92년생: 건강이 좋지 않은 운이니 동행은 삼가는 것이 좋겠다.

▷닭띠
57년생: 구설수가 따르니 불필요한 언행은 자제하라.
69년생: 인자 손해를 보면 후에 이득을 얻게 되니 커피리보 대접하라.
81년생: 미뤄왔던 문서 정리나 문서를 주고받기에 좋은 운이다.
93년생: 정신이 맑지 않은 운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실수를 범할 수 있다.

▷개띠
58년생: 겉은 화려하나 실속이 없으니 내실을 다져라.
70년생: 지출이 심해지는 운이다.
82년생: 모든일을 혼자서 관여하지 하나 좋은 결실을 맺는다.
94년생: 이성과 함께 일을 도모하기에는 좋으나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돼지띠
47년생: 사소한 실수로 인해 곤란한 상황이 처하게 되니 매사에 주의를 기울여라.
59년생: 어려움이 있다면 이성의 도움을 받아라. 생각보다 쉽게 해결된다.
71년생: 금전적으로 좋은 기운이 들어오니 적극적으로 활동하라.
83년생: 구설수가 발생하니 말과 행동에 주의가 필요하다.